

권순우 선수, 한국인 최초 ATP투어 2회 우승 달성

한국 테니스의 새로운 역사를 쓰다

한국 남자 테니스 간판스타 권순우(추밀공파 문충공계 종제공, 37세) 선수가 생애 두 번째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우승을 달성했다. 한국 선수가 ATP 투어에서 2번 이상 우승을 차지한 것은 권순우 선수가 최초다. 한국 테니스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다.



권순우는 14일(한국시각)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 단식 결승에서 로베르토 바우티스타 아구트(스페인·26위)를 2-1(6-4, 3-6, 7-6 (7-4))로 꺾었다. 이로써 권순우는 2021년 9월 아스타나오픈에 이어 1년 4개월 만에 개인 통산 2번째 투어 우승을 달성하며 이렇듯 오른 테니스단 감독(우승 1회)을 제치고 한국인 ATP 투어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권창훈 선수,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출전



권창훈 선수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뽑혀 가나와 예선 2차전 때 미드필더(MF)로 출전하여 활약했다. 한국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강호 우르과이와 가나, 포르투갈과 H조에 편성되어 예선을 치른 결과 16강에 진출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한국은 2010남아공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이후 12년 만에 다시 원정 16강에 올랐다. 권창훈 선수는 김천 상무 소속으로 포지션은 미드필더(MF)이다.

권완규 선수, FC 서울로 이적



성남 FC 수비수 권완규 선수가 FC서울로 임대 이적했다. 성균관대 졸업 후 2014년 K리그 드래프트를 통해 경남 FC에 입단한 후, 2015년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하였고, 2016년에는 포항 스틸러스로 팀을 옮겨 활약하였다. 2019에는 상무에 입대하여 활약한 바 있다.

권혁모 군 서울대학교 합격



권혁모(權赫模, 검교공파 36世) 군이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 최종 합격했다. 권혁모 군은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태어나 응봉초등학교와 예산중학교를 거쳐 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권 군은 서울대학교 이외에도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와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도 합격했으나 서울대학교에 등록하여 3월에 입학할 예정이다. 장래희망은 재료공학 분야 교수나 연구원이 되어 재료공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권 군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부생활을 마치고 대학원에 진학해 연구자로서 태양전지나 배터리 같은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연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혁모 군은 안동권씨의 유일한 정백리 전한공(典翰公) 권빈(權璘, 검교공파 18世)의 후손이며, 아버지 권오배(權五培, 50세)씨의 2남 중 장남이다. 권혁환 편집국장

운곡서원 알묘(謁廟)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 정초(正初) 德祠)에서 이지한(李志漢) 향유사를 비롯 알묘(謁廟) 행사가 1월 28일 오전 10시 시조(始祖) 테사공(太師公)과 죽림공(竹林公), 귀봉공(龜峯公)이 배향된 경덕사(景德祠)에서 이지한(李志漢) 향유사를 비롯 30여 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권오신 좌윤공파 회장

2023 계묘년 제안파종회장친목회 제18차 회의 개최

제안파종회장친목회(在安派宗會長親睦會: 회장 권기호) 제18차(次) 회의 겸 신년회(新年會)가 1월 27일 오후 5시 30분 안동시 평화9길 '한정식 청운'에서 회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저녁 기운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회원은 권기호 회장을 비롯하여 권계동 전 제안파종회장친목회 초대 회장, 권숙동 전 안동종친회장, 권주연 부회장공파회장, 권세목 북야공파회장, 권오춘 부장공파회장, 권중근 시중공파회장, 권인담, 권영택 전 정조공파회장 2명, 권영건 전 부회장공파회장, 권오의 대종회 안동사무소 사무국장, 권기원 친목회 사무국장 등 12명이다. 권오수 동정공파회장, 권기수 별장공파회장, 권순현 전 별장공파회장 등 3명은 유고(有故)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권기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권기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계묘년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들은 복 많이 받으시고 아울러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이



어 권계동 전 친목회장 초대 회장은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건배 제의를 했다. 권오의 대종회 사무국장은 음력으로 오는 3월 초순 시조 묘소 및 남중공 단소에 도유사 및제유사를 하실 분을 추천을 받고 있는데 각 파종회장님들이 추천을 해주면 심사를 거쳐서 해당자에게 망기(望記)를 보내 드리겠다"며 부탁을 하기도 했다. 신년회를 맞아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푸짐한 음식이 많이 나와서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누다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계묘년 첫 산행



서울산악회 회원들은 1월 15일 일요일 눈보라가 휘날리는 경춘선 열차를 타고 11시 반경 춘천역에 도착하여 발목까지 빠지는 눈길에 소양강 뚝길을 걸으며 회원 30여 명이 서로 담소를 나누며 추억이 길이 남을 사진을 찍어가면서 오후 2시경 남춘천역 앞 우리송어회집에 도착하였다. 회원들은 춘천의 별미인 송어회로 늦은 점심에 약주까지 곁들여 화기에애하게 식사를 마쳤다. 권영복 회장은 2월 4일이 입춘이 되어서 직접 불꽃씨로 쓴 '入春大吉 建陽多慶'(입춘대길 건양다경)을 회원들

에게 선물하고 2월 산행 때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주위에 회원 한 사람이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한 후 즐거운 행사를 끝마치고 오후 4시경 서울로 귀경하였다. 권영복 서울산악회 회장

동정



▲권혁창 대표 회장은 2022년 2월 27일 경북 의성군 안계면에 소재하는 안계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에 취임하였



야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설립한 "의료기관공동보안관리센터(의료ISAC)" 체계의 기틀 마련

다. 취임 후 권혁창 감사는 모교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동문회에서는 고등학교 2개 반 학생에게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장학금으로 년 5천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의성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여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한 지 오래고, 학생 수 또한 고등학교 2개 반을 다 채우지 못할 정도로 거의 폐교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으나 동문회에서 모교를 살리자는 뜻을 모아 2023년에는 안동, 구미, 선산 등지에서 다수의 지원자를 유치하여 2개 반 모두 다 충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총동문회장 임기는 2024년 2월말까지이다.

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중요한 개인 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침해와 위협에 대비한 점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권은석 선임 춘천문화원장이 12월 31일 문화체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국장은 대구영상

미디어센터에서 대구 영화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제반 정책 사업 개발과 지역별 소규모 영화 시장 활성화 확산에 기여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권영록 전 국립대전술체육원장이 국립산림치유원의 제4대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경북 영양 출생인 신임 권 원장은



경북대 입학과 졸업하고 1988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산림경영소과과, 홍천·평창국유림 소장, 청와대 조경담당 행정관, 중부지방산림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산림청의 행정업무와 국립대전술체육원장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이룰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대 입학과 졸업하고 1988년 공직 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산림경영소과과, 홍천·평창국유림 소장, 청와대 조경담당 행정관, 중부지방산림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특히 산림청의 행정업무와 국립대전술체육원장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체감형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이룰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정체성 확립, 독립 원사 건립 추진 등 전국 최고 문화원 도약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권은석 회장은 춘천고, 강원대 입학, 강원대학교대학원 농업교육과를 졸업한 후 1972년 중등교사로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현재 춘천문화원 이사를 맡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춘천교육장 등을 역임했다. 제19대 춘천문화원장의 임기는 2026년 12월 29일까지다.



▲권오수(좌윤공파, 35世) 한국가스기술인협회 회장이 재난대응민관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장



▲권혁성(사진 오른쪽) 삼육대학교 재무실과장이 '국민교

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오수 회장은 이외에도 국방부에서 2022년도에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실시시험 채점위원으로 두 차례나 위촉되었으며,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공으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또한 작년 5월 경찰업무 발전과 경찰 협력치안에 기여한 공으로 일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육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권 과장은 지난 29년간 삼육대 총무과, 전산교육원, 기획처, 입학관리본부, 정보전산원, 대외협력처 등에서 근무했다. 삼육대학교는 1906년 평안남도 순안에서 시작된 117년의 오랜 역사와 인성교육에 기초한 기독교 계통의 4년제 대학교이다.

▲권혁진 건국대병원 의료정보팀 과장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권혁진 과장은 민간 의료보

안동권씨 '종보 보내기 운동' 전개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정신문화를 함양하는 역사적인 자료로 과거, 현재, 미래를 등대와 같이 비칠 것입니다. 대종회에서는 이 소중한 종보를 100만 족친 여러분께서 구독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방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종보 구독자 수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종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과 받는 사람 주소를 대종회로 보내주시면 받은 즉시 전국 방방곡곡 안동권문의 문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만 송금할 경우 대종회에서 대상자 선정)

이 운동은 故 권태강 대종회 고문(전 검교공파회장)께서 별세하시기 직전에 제안하시고 종보 보내기 운동 기금으로 10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대종회에서는 故 권태강 고문의 유지를 받들어 종보 보내기 운동을 추진하오니 100만 족친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 3부까지는 부수당 30,000원. 5부부터는 부수당 20,000원(예: 10부 20만원, 50부 100만원)
- ◎ 입금 계좌번호 : 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농협 317-0009-7471-41, 국민은행 033237-04-006941)
-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안동권씨 대종회